

제목	국문	임산부들의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영문	The Associated Factors of Anxiety in Some Pregnant Women			
저자 및 소속	국문	정인숙 ¹ , 김기순 ² , 이철갑 ² , 류소연 ² 광주기독병원 ¹ ,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²			
	영문	Jung IS ¹ , Kim KS ² , Lee CG ² , Ryu SY ² <i>Gwangju Christian Hospital¹, Dept. of Prev. Med. Chosun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²</i>			
분야	역학 [기타]	발표자	류소연 [일반회원]	발표형식	포스터
진행상황	연구중 → 완료예정시기 : 2001년 11월 30일				

1. 목적

여성의 임신은 정상적인 생리 과정의 하나로 이 과정을 통해 신체적 변화뿐만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로, 임신시 야기되는 변화는 개인에 따라 모체나 태아 및 가족의 건강을 위협하고 위기 상황을 만드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 그 중에서 임신시 일어나는 정신적 문제는 임신 자체로 야기되는 독특한 정신장애라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억압되어진 심리적인 것이 표재화 됨으로써 정신적으로 큰 부담을 지우게 되며 불안과 공포를 유발하여 자연유산, 임신구토증, 임신중독, 조산, 태아 사망 등 임신부 자신과 태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여성의 임신기간 동안에 경험하게 되는 불안의 정도와 그 관련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하여 시행하였다.

2.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일개 종합병원 산부인과와 산부인과 의원에 산전진찰을 받기 위해 2001년 8월 15일부터 31일까지 방문한 임신부 367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임신부의 연령, 결혼기간, 교육정도, 결혼 만족 여부, 제태기간, 출산 경험, 임덧 여부, 임신합병증, 배우자 지지와 불안을 조사하였다. 불안측정도구는 Spielberger에 의해 개발된 상태불안측정도구를 이용하였다. 분석방법은 임신부의 여러 특성과 불안점수 비교는 t-검정, 분산분석, Pearson의 상관분석을 이용하였고, 불안과 관련이 있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결과

연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9.8세로 임신전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22.3%, 중기가 30.2%, 후기가 47.1%였다. 초산부인 경우는 대상자의 50.4%, 경산인 경우는 49.6%이었다. 종교, 직업, 시댁식구와의 관계, 결혼에 대한 만족도, 계획된 임신 여부, 임신 이전의 질병, 임신 합병증, 태아의 건강상태, 임덧, 배우자 점수가 임산부의 불안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는 변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결혼생활에 만족하지 못할수록, 계획되지 못한 임신의 경우, 임신 이전부터 앓아왔던 질병이 있거나, 임신을 인해 질병이 발생한 경우, 태아의 건강이 좋지 못한 경우, 임덧이 심한 경우일수록 임산부의 불안점수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4. 고찰

본 연구 결과 임신한 여성 자신의 건강, 태아의 건강, 임덧,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이 임신동안에 경험하는 불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을 하기 위해선 임신부의 상태에 따라 불안을 조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